쓸데없게 된 내 육체의 치솟는 몸값

(느헤미야 5:1~19)

1. 그 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2.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3.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4.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5.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 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쓸데없게 된 내 육체의 치솟는 몸값>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쓸데없게 된 내 육체의 치솟는 몸값'

심청이는 공양미 삼백 석에 몸을 팔아 인당수에 빠졌습니다. 또한 납치범이나 유괴범이 인질을 석방하는 대가로 몸값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손흥민 선수나 호날두 선수 등 유명한 사람들의 연봉도 몸값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의 몸값은 목숨 값이나 실력의 값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깃덩어리로 이루어진 육체의 값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은 앞부분에 이어서 맥락이 없어 보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앞부분에서는 필사의 각오로 불퇴전의 마음으로 벽 쌓기를 진행해나가는 모습이 소개되었습니다. 주변 이방족속들이 훼방과 위협을 하자 변방에 살던 유대인들이 열 번이나 와서 성벽 재건을 중단하고 이방인들의 위협에 대처하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에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불퇴전의 각오로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각오는 곧 우리 마음이 육체의 연관성으로부터 기쁨과 만족을 취하지 않겠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세상을 대해서는 단절을 하는 것인데 죽기를 각오하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성전을 생활화하므로 세상으로부터 만족과 기쁨

을 얻으려하는 마음을 번제단에서 끊임없이 죽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으로 만족과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한 뒤에 백성들이 일용할 양식이 부족함으로 인해 불평 불만하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라고 합니다. 이는 백성들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역사적 사실을 단순히 보고하기 위하여 말씀이 기록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벽 쌓기라는 영성 추구의 절정을 보여준 사건 뒤에 왜 일용할 양식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는 것일까요?
'일용할 양식'이란 육체를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생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인데 육체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서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목적은 육체의 보존을 위해서입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은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이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서 일어나는 변화의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육체는 영성의 반대적 개념으로 보일 수 있지만 강력한 영성 추구 뒤에는 반드시 육체의 중요성에 주위를 기울이는 단계가 오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일용할 양식의 궁핍에 대한 문제가 그 당시 일부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에 페르시아로부터 귀환해서 살았던 유다 백성들 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 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일용할 양식조차 구하기 어렵게 된 배경을 보자면 느헤미야가 오기 전부터 그 땅에 흉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관리들에 의해서 과도한 세금이 징수되고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내기 위해서 밭이나 포도원을 저당 잡히고 갚지 못하자 결국 빼앗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부자들이 돈을 꾸어주며 인정사정없이 많은 이자를 요구했고 빚을 갚지 못하자 인신매매의 차원에서 채무자들의 가족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느헤미야가 실시한 경제체제나 제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의 균등한 분배와 정의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앞장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맥락을 볼 때에 사회제도나 경제제도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나타나는 변화의 과정 중에서 육체가 주목되는 단계가 오게 됨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산해진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육체의 보존을 위해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다만 미각을 충

족시키기 위해서 맛을 탐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일용할 양식이 문제가 되는 상황은 육체가 존재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상황으로서 이를 통해 육체 존재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용할 양식으로 보존되고 유지되는 육체가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이것은 호날두나 손흥민 선수의 몸값이 아닙니다. 심청이의 공양미 삼백 석의 몸값도 아니고 유괴범이 요구하는 인질의 몸값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육체의 가치입니다. 영성을 추구하는 복음의 세계 속에서 육체의 가치가 어떻게 산정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벽 쌓기'란 마음이 육체 연관성(사람관계, 사물관계, 일 관계)의 관계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으려 하지 않음을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마음이 만족하고 기쁨을 얻는 일에 있어서는 육체는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육체 연관성에 대한 벽 쌓기가 온전하면 온전할수록 육체는 내 마음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는 점점 더 쓸모가 없어집니다.
완벽하게 마음에 벽을 쌓았다면 육체는 완벽하게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쓸모없어진 몸을 보존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선민들에게는 절대로 육체를 보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 쓸모없게 되어버린 육체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은 오직 성전 생활화와 그 완성인 십자가 생활화를 반복함을 통하여 육체 연관성에 대해서 기뻐하고 만족하려고 할 때마다 죽는 것입니다. 육체의 연관성에서 얻는 것이 죄악이고 죄를 지으면서 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은 하늘에 올라가 있고 육체는 땅에 남았습니다. 이제부터 이 땅에서 육체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계획들을 다 끌어 모으십니다.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육체를 사용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는 쓸모가 없었습니다. 내 육체의 가치가 하나님께는 제로였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주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기를 반복할 때에 내 육체가 내게는 쓸모없지만 하나님께는 내 육체 값이 치솟습니다. 내게 쓸모가 없으면 없을수록 하나님의 주권이 마음대로 활용하실 수 있는 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육체로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하실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아무 쓸모가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으셨고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통해 기쁨과 만족을 얻을 이유가 없으셨고 바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육체를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사용하셔서 마지막까지 태어날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실 계획을 이루어내셨는데 놀라운 일입니다.
오직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내 마음이 하늘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불퇴전의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만을 찾습니다. 사업이 안 되거나 몸에 병이 나거나 자녀의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에게 마음이 갈 때마다 십자가 생활화를 하며 육체의 연관성과 벽을 쌓는 것입니다.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반복할 때에 내 육체는 내게서 점점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럴 때에 하늘에서 내 육체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내 몸을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 동안은 내 몸을 마음대로 쓰고 살면서 병들고 쓸모없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만을 추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병든 몸도 비싸게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필요하다면 병도 고치실 것입니다. 심지어 병든 몸인 상태로 누워있으면서도 주변의 가족과 사람들을 다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았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까지 3년 동안 중풍으로 누워 계셨을 때에 저희 식구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어머니의 관계도 그러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섬겨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었는데, 3년 아프신 동안에 더 많은 고생을 하셨지만 어머니가 완전히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 가셨습니다. 할머니 아프신 동안에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 연관성으로부터 기쁨과 만족을 얻겠다고 일마다 죄악이었던 사람이 감옥에 갇혀서 종신형을 살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속에서 십자가 복음을 듣고 주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따라가며 하늘로부터의 평안을 얻고자 하는 결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죄악만 일으키던 육체가 쓸모가 없어지지만, 하늘에서는 그 육체의 값이 치솟게 됩니다. 감옥에서라도 역사가 일어날 수 있으며, 필요하시다면 사면을 받게 해서라도 감옥에서 나오게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재력이나 출신이나 학력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내 육체는 내 마음에서 쓸모없어질 때에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게 하는 하늘 기운의 옹달샘이자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장에서 마음의 벽 쌓기를 강조한 것입니다. 몸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마음의 벽 쌓기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벽 쌓기가 이루어지고 나서야 육체의 가치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내게는 쓸모없는 육체이지만 하나님께는 수많은 소원과 계획을 이루실 통로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몸값이 치솟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이 육체로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지르며 살았고 어떤 상태의 몸이 되셨습니까? 그러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서 육체가 아무런 쓸모가 없도록 십자가를 생활화하시면, 내 마음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 교제하시는 가운데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기도를 24시간 쉬지 않고 할 때에 내 마음에서는 평안이 유지되는 사이에 내 육체가 완전히 쓸모없는 육체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값진 육체로 채택하시고 그

계획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내 육체가 하늘 뜻이 샘솟는 옹달샘이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러한 뜻입니다. 육체의 보존과 유지를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학력도 집안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기도대로 하나님 아버지로 만족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기에 주력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일용할 양식을 통해 보존된 내 육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내 육체의 연관성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사는 방법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내 마음에서 육체는 완전히 쓸모없는 것이 되기 위하여 쉬지 않고 십자가 생활화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내 마음이 몸을 쓸데없이 여기면 여길수록 하늘에서 내 육체 값이 최고로 치솟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확인하는 삶이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인간 세상에서 매긴 내 몸값을 올리기 위해 분주하고 노심초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만족과 기쁨에 대해서는 육체가 완전히 쓸모없는 것이 되게 하심으로서, 하늘에서 매기는 육체의 몸값이 치솟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